

##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여가만족: 참여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정하나<sup>1</sup> · 황선환<sup>2</sup>

<sup>1</sup>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 <sup>2</sup>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Mountain Climber's Leisure Satisfaction based on the Level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Moderation Effect of Duration of Participation

Jeong, Hana<sup>1</sup> · Hwang, Sunhwan<sup>2</sup>

<sup>1</sup>University of Seoul, PH.D. Student · <sup>2</sup>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moderation effect of participation du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in mountain climber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mountain climbers who had a experience more than one year,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A total of 44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es using the SPSS 24.0 program. In order to analyze the mountain climb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uration of participation,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Next,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participation duration were classified through K-means cluster analysis for the follow-up test, and *t*-test was conducted for mean differenc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recreation specializ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isure satisfaction, and the mountain climber's duration of participation ha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Especially, the moderation effect of duration of particip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in group with low level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was shown to be greater.

**Key words :** recreation specialization, leisure satisfaction, duration of participation, mountain climber

주요어 :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여가만족, 참여기간, 등산 참여자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기초·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Sunhwan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6490-2954 Fax: +82-2-6490-2949, E-mail: shhwang@uos.ac.kr

Received: February, 10, 2020 Revised: March, 14, 2020 Accepted: March, 23, 202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평기한 응답이 85.8%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활동 참여 여부는 양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었다. 더욱이,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하는 다양한 긍정적 경험들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거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써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미량, 김동제, 권창기, 2012; 이제홍, 최원오, 이혁, 2012; 황선환, 김미량, 2010)이 보고되면서 더욱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여가활동 중 등산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동시에 건강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등산(17.3%)은 걷기(41.6%)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문화체육관광부, 2019). 동호인 클럽 수가 2,262개, 회원수 145,832명에 달하며,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또한, 단순한 산책개념의 등산에서부터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참여 경향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여가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참여경향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미국의 여가학자 Hobson Bryan(1977)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술과 선호되는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참가자에

서 특별한 참가자로 발전하는 행동의 연속체”로 정의되고 있다. 즉,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단계를 거치는 전문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특정한 행동양식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참여자 개인의 참여수준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관련 변인들에 대한 독특한 행동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등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즉, 여가활동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 과정에 걸쳐 획득하게 되는 경험적 요소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통해 여가만족을 향상시키거나, 삶의 질, 행복, 웰니스 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김홍설, 황선환, 이문진, 2013; 김미량 등, 2012; 이제홍 등, 2012; 최성범, 2010; 황선환, 김미량, 2010; 김정운, 이장주, 2005).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김홍설 등, 2013; 김정운, 이장주, 2005; 최성범, 2010, 황선환, 2010)은 여가만족이 향상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가활동에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감정 즉, 여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Beard & Ragheb, 1980).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 및 참여 그리고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남인수, 남경완, 김종철, 2009).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 즉,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의 지속은 결국 여가활동 참여의 결과로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

며, 이는 결국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여가만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민경훈, 김수검, 2008; 김영재, 2004)들은 여가만족과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에서의 여가만족이 심리적·감정적 편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이는 여가활동 참여과정 즉,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통해 형성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들(김홍설 등, 2013; 김정운, 이장주, 2005; 최성범, 2010, 황선환, 2010)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시간 경과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관점의 시사와 재정립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문진, 2011; 김현정, 박근수, 2018; Scott & Lee, 2010; Kuentzel & Herberlin,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발전하지만, 참여자에 따라 발전과정의 속도나 수준이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동일한 여가활동과 동일한 참여기간으로 참여하더라도 참여자 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변인들 또한 다른 관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있어 참여기간은 시간의 경과를 대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기간에 관한 연구들(김형민, 박종민, 2018; 박길태, 전진욱, 2015; 이계홍 등, 2012; 김영애, 2001)은 주로 참여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만족감, 행복, 삶의 질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간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전문화 수준에서의 관계 변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발전할 수 있지만, 참여자 개인에 따라 동일한 참여기간일지라도 다른 수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여가만족에 대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기간과의 관계성으로 미루어 볼 때,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은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다양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여가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관계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해왔던 연구의 틀을 벗어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관계가 여전히 성립하는지를 다시금 조명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여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참여기간이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즉,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고, 조절변인으로서 참여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의 관계에 있어 참여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의 관계에 있어 참여기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만약, 참여기간의 조절효과가 검증된다면, 조절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follow-up test를 진행할 것이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별 참여기간에 따른 여가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여가만족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가 활동 참여자의 참여기간이 어떻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목적표집법으로 아마추어로서 등산대회에 참가한 등산 참여자들 중 참가 경력이 1년 이상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00명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총 443명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443명의 연구대상 중 남자가 277명(62.5%), 여자가 166명(37.5%)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성	남자	277	62.5
	여자	166	37.5
연령	평균/표준편차	52.17(세)	13.15
	기혼	353	79.7
결혼 여부	미혼	66	14.9
	이혼	10	2.2
수입	사별	14	3.2
	200만원 미만	72	16.2
	200~300만원	121	27.3
	300~400만원	120	27.1
	400~500만원	65	14.7
	500만원 이상	65	14.7
교육 수준	고졸 미만	34	7.7
	고졸	121	27.3
	대졸	244	55.1
	대학원졸	44	9.9
계		443	100

은 52.17세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결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혼자가 353명(7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혼 66명(14.9%), 사별 14명(3.2%), 이혼 10명(2.3%)순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으로 측정된 수입에 대한 문항에서는 200~300만원 수입이라는 응답자가 121명(27.2%)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120명(27.1%), 200만원 미만 72명(16.3%),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65명(14.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244명(55.1%)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고졸 121명(27.3%), 대학원졸 44명(9.9%), 고졸 미만 34명(7.7%)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성별, 연령, 결혼여부, 수입, 교육수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7문항, 여가만족 4문

항, 참여기간 1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참여기간을 제외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Lee & Scott(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가 참여자의 행동적 전문화(2문항), 기술, 지식에 관한 인지적 전문화(3문항), 전념(4문항) 전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개방형으로 측정된 행동적 전문화 2문항을 제외한 7문항을 등산 참여자에 적합한 문항으로 번안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번안된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인지적 전문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등산 장비의 효율적 활용법에 대한 지식, 등산 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인지도, 주관적 등산 실력을 측정하였다. 전념은 행동적 전념과 개인적 전념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행동적 전념은 ‘만약 등산을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만약 등산을 중단한다면 많은 친구들을 잃을 것이다’로 구성했으며, 개인적 전념은 ‘다른 여가활동은 등산만큼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와 ‘나는 다른 어떠한 여가활동보다 등산을 할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에 대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을 실시한 결과 인지적 전문화와 전념으로 구분되었으며, 두 요인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전체 변량의 77.77%를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전문화의 신뢰도는  $\alpha = .935$ , 전념의 신뢰도는  $\alpha = .833$ , 전체 신뢰도는  $\alpha = .885$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명	
	인지적 전문화	전념 전문화
장비의 활용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944	.189
안전수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941	.178
등산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832	.345
등산에 갈수 없다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036	.858
만약 등산을 중단한다면 많은 친구를 잃을 것이다	.221	.793
다른 여가활동은 등산만큼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391	.734
다른 어떤 여가활동보다 등산을 할 것이다	.486	.667
고유값	4.185	1.259
분산(%)	59.78	17.99
누적분산(%)	59.78	77.77
신뢰도(Cronbach's $\alpha$ )	.935	.833
KMO=.845, Bartlett 구형성 = 2200.26, $df=21$ , $p<.001$		

### 2) 여가만족

여가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Yoon & Uysal(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단일요인 4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여가만족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여가만족 문항은 ‘기대 수준에 대한 만족도’, ‘투자한 노력과 시간의 가치’, ‘등산의 전반적인 만족도’, ‘다른 여가활동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여가만족의 신뢰도는  $\alpha = .949$ 로 높게 나타났다.

### 3) 참여기간

등산 참여자의 참여기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몇 년 동안 참여하셨습니다?’라는 물음에 대한 개방형 설문으로 연 단위로 측정하였다. 443명의 등산 참여자들은 최소 1년에서

표 3. 연구대상의 등산 참여기간 (단위: 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
참여기간	1.0(년)	56.0(년)	18.06	14.1034

$n = 443$

최대 56년 동안 등산에 참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8.06년 동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참여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 참여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에 대해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군집분석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참여기간의 수준별 집단 분류 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 III. 결과

### 1. 상관관계 분석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 참여기간에 대한 요인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 참여기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표 4.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1. 참여기간	1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600**	1	
3. 여가만족	.415**	.582**	1

\*\*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식(2005)의 판별타당도 기준에 따라 모든 상관계수가 .85를 초과하지 않은 .60( $p < .01$ ) 이하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조절효과 분석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여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1987)가 제시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과정을 거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른 단계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beta = .582$ )가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에 대한 전체 변량의 3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조절변수인 참여기간을 추가 투입하여

표 5.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여가만족: 참여기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모형	b	SE	$\beta$	t	$\Delta R^2$	F	VIF
여가만족	1 (상수)	5.134	.050		102.874***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751	.050	.582***	15.033***	.337	226.004***	1.000
	2 (상수)	5.134	.050		103.29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671	.062	.520***	10.798***	.343	4.575*	1.561
	참여기간	.133	.062	.103*	2.139*			1.561
	3 (상수)	5.245	.059		88.816***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618	.063	.479***	9.740***	.358	11.419**	1.664
	참여기간	.212	.066	.164**	3.226**			1.788
	전문화 x 참여기간	-.185	.055	-.138**	-3.379**			1.146

Durbin Watson = 1.943,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한 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beta=.520$ )가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참여기간( $\beta=.103$ ) 또한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4.3%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기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beta=.479$ )와 참여기간( $\beta=.164$ )은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기간의 상호작용항( $\beta=-.138$ )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5.8%를 설명하며, 참여기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의 관계에 있어 참여기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구분하여, 참여기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기간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아래의 <표 6>과 같이 상( $M=5.55$ ), 중( $M=3.96$ ), 하( $M=2.13$ )의 3개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F=1061.69$ ,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K-평균 군집분석

변수	하	중	상	F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2.13	3.96	5.55	1061.69***
n	108	196	139	

\*\*\* $p<.001$

또한 평균 18.06년을 기준으로 하는 참여기간은 상( $M=31.744$ ), 하( $M=7.783$ )의 2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표 7. 참여기간의 K-평균 군집분석

변수	짧음	깊
참여기간	7.783	31.744
n	253	190

\*\*\* $p<.001$  (분류 기준점: 평균 18.06년)

분류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별 집단의 참여기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같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참여기간 분류에 따른 여가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별 집단 중 전문화가 낮은 (하)집단에서 참여기간에 따라 여가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상)집단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하) 집단에서 참여기간에 따른 여가만족의 유의한 차이( $t=-2.669$ ,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참여기간이 긴 집단( $M=4.917$ )이 짧은 집단( $M=3.844$ )보다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참여기간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레크리에이션

표 8.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참여기간별 여가만족의 차이

전문화 수준	종속 변인	독립변인 참여기간	n	M ± SD	t
전문화 (하)	여가만족	짧음	96	3.844±1.344	-2.669**
		깊	12	4.917±1.008	
전문화 (중)	여가만족	짧음	124	5.206±0.987	-1.880
		깊	72	5.493±1.105	
전문화 (상)	여가만족	짧음	33	5.621±1.188	-1.250
		깊	106	5.849±0.813	

\*\* $p<.01$

전문화 수준이 낮을수록 오랜 참여기간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논의

본 연구는 등산 참여자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 참여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높을수록 여가만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발전과 함께 여가만족 또한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미량 등, 2012; 이제홍 등, 2012; 황선환, 김미량, 2010)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특히, 전문화 수준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여가활동 참여자들은 여가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결과이자, 재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김미량, 2012).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기술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여가만족을 경험하고, 두 변인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여가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 참여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을 경우, 참여기간이 조절하여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낮지만, 참여기간이 긴 경우 여가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

행연구들과는 다른 맥락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참여기간이나 정도에 따른 분류 없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시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입각하여,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만족이 높다는 선형적인 관계를 입증하거나, 참여기간이 길수록 여가만족이 높다는 한정적인 결과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여가활동에서 참여할지라도 참여자들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참여기간에 따라 여가만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를 발견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을지라도 상대적인 관점에 의해 여가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화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참여기간의 영향력이 더욱 더 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는 참여정도에 따라 여가만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형민, 박종진, 2018; 노미영, 이만령, 2018; 이제홍 등, 2012; 박명국, 김경렬, 오근희, 2010)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박명국, 김경렬, 오근희(2010)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몰입과 여가만족의 관계 연구에서 참여기간이 길수록 여가만족 중 사회적 만족이 높음을 밝혔다. 여가만족의 다양한 하위요인 중 사회적 만족은 단순히 참가를 넘어 동호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유대를 통해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참여기간에 따라 하위요인들의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이제홍, 최원호, 이혁(2012)은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정도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정도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댄스스포츠 참여정도(기간, 빈도, 강도)가 높을수록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연구와 달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등산 참여기간을 분류화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 있어 여가활동의 유용성을 증명하고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뜻은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노미영, 이만령(2018)은 여대생들의 운동 참여기간에 따른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노미영, 이만령(2018)은 여대생의 운동 참여기간을 '1개월 이하', '1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긍정적 심리요인들과 운동지속의도를 분석하였는데 참여기간이 낮을수록 긍정적 심리요인 중 긍정과 희망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했으며, 기간이 낮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여대생들의 참여기간의 집단을 준비집단과 실천집단으로 분류하고 묘사하면서 실천집단 보다는 오히려 운동에 참여하고자하는 준비집단에서 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에 진입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를 묘사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화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의 참여의 결과가 개인의 내재적인 요소들로 인한 결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을지라도 참여자가 참여에 앞서 기대하거나 요구했던 요인들에 대해 충족함으로써 여가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높을

수록 여가만족이 높다는 결과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을지라도,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만족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즉,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투자와 관여를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체에 의미를 두고 오랜 기간동안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만족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어야 할 때이다.

## V. 결론

그동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만족, 행복감, 주관적 삶의 질과 같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성에서 다뤄져왔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가참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간접적 감정경험들을 통한 결과물로서 파생되는 여가만족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도 여가참여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참여기간이라는 변인을 통해 참여기간에서의 차이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443명의 등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등산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참여기간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지만,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여가만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단정 짓고,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해 고도로 집중된 투자와 헌신보다는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서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나, 지식·정보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나 노력, 애착, 전념과 같은 요소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어떠한 수준을 결정 짓는 행위적인 차원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관점에서 가치를 둔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볼 때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VI. 제언

본 연구에서는 참여기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검증하였지만, 참여빈도나 강도를 추가 분석하여, 유의미한 만족감을 밝혀낼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만족경험을 위한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IPA 분석과 같은 유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별 유형에 기초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의 내재적 가치와 여가활동 목적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여가활동 참여와 만족을 이끄는 주요한 변수로 단정하고, 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관계 변인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에 본

연구는 참여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요인에 대한 확장된 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만족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요인에 대한 보다 확장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경식(2005).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무지개출판사.
- 김미량(2012). 여가참여수준 세분화에 따른 여가만족과 여가몰입: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3(3), 566-574.
- 김미량, 김동제, 권창기(201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만족 및 행복의 관계: 진지한여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1(1), 387-396.
- 김영재(2004). 대학생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형 여가만족요인 사용.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197-204.
- 김정운, 이장주(2005).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15.
- 김현정, 박근수(2018).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비판적 재구성 - 캠핑 전문화의 방향성과 경로다양성. *관광학연구*, 42(6), 101-126.
- 김형민, 박종진(2018). 생활체육 레슬링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여가만족의 차이 분석. *대한무도학회지*, 20(4), 135-148.
- 남인수, 남경완, 김종철(2009). 남자대학생의 여가참여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27-38.

- 노미영, 이만령(2018). 운동참여기간에 따른 여대생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7(6), 287-300.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스포츠 산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경훈, 김수겸(2008). 직업군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4), 21-32.
- 박명국, 김경렬, 오근희(2010).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몰입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83-93.
- 이문진(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문진, 이연주(2010).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403-412.
- 이제홍, 최원오, 이혁(2012). 댄스스포츠 참여정도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9, 437-446.
- 최성범(2010). 진지한 여가로서의 골프참여와 레크리에이션전문화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2), 1389-1399.
- 황선환, 김미량(2010).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여가만족도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2), 1287-1286.
- 황선환. (2010). 스키어들의 여가활동 참가정도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2), 811-819.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174-187.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Cronbach, L. (1987). Statistical tests for moderator variables: Flaws in analysis recently roposed. *Psychological Bulletin*, 102(3), 414-417.
- Kuentzel, W. F., & Heberlein, T. (2006). From Novice to Expert? A Panel Study of Specialization Progression and Change. *Jouranal of Leisure Research*, 38(4), 211-226.
- Lee, J. H., & Scott, D. (2006). For better or worse? A structural model of the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recreation specialization. *Leisure Sciences*, 28, 17-38.
- Scott, D., & Lee, J. H. (2010). Progression, Stability, or Decline? Soci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Change in Specialization Among Birdwatchers. *Leisure Sciences*, 32(2), 319-343.
- Yoon, Y. S., & Uysal, M. (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 45-56.